

# 기아, 덩치 키운 ‘셀토스’ 물고왔다… 소형SUV 왕좌 탈환 시동

## 완전변경 ‘디 올 뉴 셀토스’

외관 ‘오퍼릿 유나이티드’ 철학  
단단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실내 공간성·파워트레인 다양화  
2세대, 개발부터 고객요구 맞춰”

기아의 글로벌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베스트셀링 모델인 셀토스가 2세대 모델로 돌아왔다. 1세대 대비 차체 크기를 키우고 완전히 달라진 디자인과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확보했다.

기아는 10일 월드프리미어 영상을 통해 ‘디 올 뉴 셀토스(이하 셀토스)’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기아의 글로벌 SUV 라인업의 핵심 모델인 셀토스는 2019년 출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200만대가 판매됐으며 연간 40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2세대 셀토스는 뛰어난 디자인과 실용적인 상품성, 신규 라인업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갖추고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모빌리티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아가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소형 SUV ‘디 올 뉴 셀토스’.

기대된다.

우선 외관은 기아 디자인 철학인 ‘오퍼릿 유나이티드(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를 바탕으로 정통 SUV의 단단한 스타일에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더했다. 전면부는 강인하고 와이드한 이미지를 강조한 라디에이터 그릴이 램프와 일체화된 수직의 그릴 패턴과 조화를 이루며 역동적인 첫인상을 완성한다. 후면부는 와이드한 테일게이트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램프를 통해 깔끔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구현했다. 디자인 특화 트림인 셀토스 X-라인은 역동적이고 대담한 이미지를 한층 더 부각시켰다.

휠베이스와 전장은 1세대 대비 각각 60mm(2690mm), 40mm(4430mm) 늘어났으며 2열 레그룸은 25mm(990mm) 확장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트렁크 공간은 38리터 확장된 536리터를 제공한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기아 고객을 대상으로 2세대 셀토스에 필요한 부분을

조사했는데 ‘실내 공간성·파워트레인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며 “2세대 셀토스는 개발부터 고객 요구에 맞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기아는 2세대 셀토스를 1.6 하이브리드와 1.6 터보 가솔린 총 2개 파워트레인으로 운영한다. 기아는 셀토스에 우수한 연비를 갖춘 1.6 하이브리드 엔진을 새롭게 추가해 경제성과 친환경 가치를 추구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차량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기아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친환경차 수요가 높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공략해 나갈 전망이다.

또 셀토스 하이브리드 모델에 실내 V2L(차량 외부 전력 공급)을 적용해 전 기차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전동화 특화 기술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했으며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 3.0을 탑재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1.6 터보 가솔린 모델은 최고 출력 193마력, 최대 토크 27.0kgf·m의 우수한 주행 성능을 갖췄으며, 4WD 모델에는 터레인 모드가 장착돼 다양한 노면

환경에 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기아는 이처럼 차급을 뛰어넘는 제품 경쟁력으로 무장한 셀토스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를 확대하는 동시에 브랜드 입지를 한층 더 확고히 다져 나갈 계획이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셀토스는 언제나 동급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왔으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모델 역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돋보이는 디자인과 상품성으로 명성을 이어갈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 판매 목표는 연 43만대로 1세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디 올 뉴 셀토스’ 내부 모습.

## 삼성SDI, 美에 2조 규모 ESS LFP배터리 공급

미주법인 ‘삼성SDI 아메리카’에  
내후년 부터 약 3년간 공급 예정  
현지공장 라인전환 제품 생산키로

삼성SDI가 미국 에너지 인프라 기업과 2조원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ESS 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삼성SDI는 미주법인인 ‘삼성SDI 아메리카(SDI America, SDIA)’가 미국의 에너지 관련 인프라 개발·운영 업체와 ESS용 LFP 배터리 공급을 위한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총 2조원을 훌쩍 넘고 오는 2027년부터 약 3년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급하게 될 제품은 미국 현지 공장의 라인 전환을 통해

생산될 계획이다.

삼성SDI는 미국 내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스텔란티스와 공동으로 전기차용 각형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 가동하고 있으며, 현지 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생산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현재는 ESS용 삼원계(NCA) 배터리를 생산 중이지만 현지 수요에 맞춰 LFP 생산라인도 확보할 계획이다.

삼성SDI가 이번에 공급하는 LFP 배터리는 일체형 ESS 배터리 솔루션인 SBB(Samsung Battery Box) 2.0에 탑재된다.

SBB는 20피트(ft) 크기의 컨테이너에 배터리와 화재 안전장치 등을 통합 설치한 일체형 ESS 솔루션으로, SBB 2.0은 각형 LFP 배터리가 적용된 첫

모델이다.

삼성SDI는 그동안 LFP 연구개발(R&D)을 통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LFP 소재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한편 차별화된 소재와 극한 공정 기술을 통해 에너지 밀도까지 보완했다.

업계에서는 파우치형에 비해 내구성이 뛰어난 각형의 장점과 함께 첨단 안전성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이 이번 삼성SDI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성사에 주요했다고 분석한다.

삼성SDI 각형 배터리는 단단한 알루미늄 캔 타입의 외관 구조로 돼 있어 외부 충격으로부터 강하다. 내부 열 발생 시 즉각 배출이 가능한 벤트와 퓨즈 등의 안전 장치가 설계돼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현대로템, 우즈벡 고속차량 초도물량 출고

1편성 당 7량, 총 42량 공급

현대로템이 국산 고속철도차량의 첫 해외 수출로 기록된 우즈베키스탄 고속차량 초도 물량을 조기에 출고했다.

현대로템은 10일 경남 창원 마산항에서 ‘우즈벡 고속차량 초도 편성 출항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이 공급하는 우즈벡 고속차량은 1편성 당 7량, 총 42량 구성이다.

현지 맞춤형으로 궤도 폭이 넓은 광궤용 대차가 들어가는 이 차량은 사막 기후의 높은 고온과 모래바람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내는 방진 설계가 적용됐다. 총 1286km에 달하는 현지 장거리 노선에 투입돼 교통 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고속차량 첫 해외 수출임에도 조기 출고가 가능했던 이유는 30년 넘



현대로템 우즈베키스탄 고속차량. /현대로템

게 쌓아 올린 국산 고속차량 제작·운영 경험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현대로템은 최초 국산 고속차량인 KTX-산천부터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KTX-청룡(EMU-320)까지 국가핵심기술이 적용된 고속차량을 양산하고 있다. 올해는 국책 연구과제인 차세대 고속차량 EMU-370 개발까지 완료했다.

/이승용 기자

## LG전자, 스튜디오큐브에 LED 솔루션 공급

메인스크린 크기 60m\*8m 규모

LG전자가 국내 최대 가상 스튜디오에 버추얼 프로덕션 전용 고화질 LED 솔루션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상업용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무대로 떠오른 버추얼 프로덕션 시장 선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대전에 운영 중인 공공 영상제작 인프라 ‘스튜디오큐브’에 새롭게 조성된 버추얼 스튜디오 ‘스튜디오 V’에 버추얼 프로덕션 전용 LED 솔루션(모델명: LBCJ026)을 공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튜디오큐브는 2017년 대한민국 방송 및 영상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 스튜디오로 오징어 게임, 킹덤, 스위트홈 등 수많은 작품의 촬영지로 활용되고 있다.

버추얼 스튜디오는 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배경을 구현하는 시설이다. 대규모 세트 제작과 로케이션에 사용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줘 영화, 미디어, 광고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제품은 메인 스크린 크기만 가로 60m, 세로 8m이다. 높이 조절이 가능한 천장 스크린과 이동식 보조 스크린을 합치면 국내 최대 규모인 총 782.5㎡로 65인치 TV를 약 660개 이어붙인 것보다 더 크다.

/차현정 기자 hyeon@

## SK케미칼 中 커린러와 합작법인 리사이클 원료 혁신센터

SK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리사이클 수직 계열화를 구현한다.

SK케미칼은 중국 커린러와 함께 폐플라스틱 처리 시설인 ‘리사이클 원료 혁신센터(FIC)’ 건설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중합 등 화학적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소싱 설비를 갖춘 법인을 구축하는 것은 SK케미칼이 최초다.

중국 산시성의 플라스틱 재활용 전문 기업 커린러는 10년간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영위해온 기업으로, SK케미칼의 기술력으로 전처리 후 재활용 원료인 PET 펠릿을 생산한다.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

## 항공업계 ‘연말 특수’ 특별기 등 운영

대한항공, 24~31일 마일리지 특별기 아시아나, 하와이 항공권 할인쿠폰

국내 항공업계가 연말 항공기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운영한다. 보다 편리한 스케줄로 특별기를 운영해 성탄절과 연말 맞이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편의성을 높이고 쾌적한 항공 여행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마일리지 특별기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부터 김포~제주 노선 특정 시간대에 마일리지로 우선 발권이 가능하도록 마련됐다. 단 28일은 운항하지 않는다.

이번 마일리지 특별기의 상세 운항 스케줄과 예약은 12월 10일부터 대한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겨울철 인기 노선인 미국 하와이행 마일리지 항공권을 오는 21일까지 특별 할인한다. 최대 10%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왕복 기준 1만 마일을 차감해주는 마일리지 항공권 행사도 병행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도 특가 경쟁에 나서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14일 자정까지 ‘해피 홀리데이’ 연말 특가전을 열고 국제선 58개 노선의 초특가 항공권을 판매한다. 이스타항공은 방콕, 치앙마이, 다낭 등 동남아 7개 노선에 대한 특가 판매를 진행한다.

/양성운 기자